

광주 공모교장 4년뒤엔 교감으로 되돌아간다

시교육청, 관행적 교장 승진 임용 없기로 교단 외면 가속화...자칫 '유명무실' 우려

오는 9월1일 발령되는 광주지역 공모교장 전원이 4년 뒤 교감으로 되돌아간다. 광주시교육청이 공모교장 제도가 '출세 지름길'로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 임기가 끝나면 임용 당시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는 인사지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지원자가 적어 곁돌고 있는 공모교장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0개 초·중·고교에서 교장 공모가 진행 중이다. 초등의 경우, 양산·문흥·율곡·지평·하남중앙·경암·월곡초 등 7곳이며, 중학교는 월곡중, 고등학교는 성덕고와 상일여고다. 각 학교별로 지난 7일 공모를 마감한 결

과, 상일여고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공모교장 지정을 취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초등 7곳은 한 명뿐인 '단독 지원'에 그쳤다. 교장을 공모한 10개 학교 중 80%인 8곳에서 단독 응모했거나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이는 이렇다할 경쟁 없이도 일정기간만 지나면 교장 승진이 이뤄지는 마당에, '출세용'이라는 주변의 끊임없는 시선까지 감수하면서 공모교장에 응모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2년 뒤 중간평가를 받아야하는 부담도 지원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교단에서 공모교장을 외면하면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학교 현장의 변화와 활력을 꾀하겠다는 당초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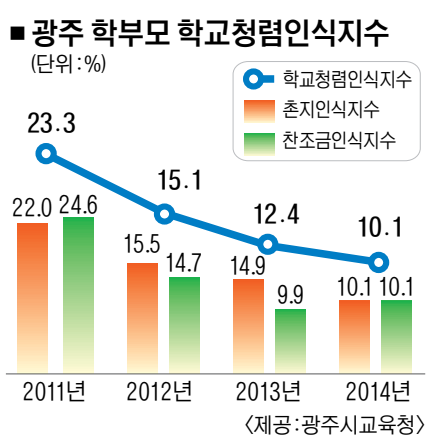
지는 무색하게 됐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공모교장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교장 조기 임용이라는 메리트까지 없애면서 교단의 외면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9월1일 공모교장 임용부터 4년의 임기가 끝나면 임용 당시 직위로 복귀하도록 인사지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교장들은 4년 뒤 모두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발령나게 된다. 그동안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 임용 했었다. 관행적으로 공모교장을 마치면 초임교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의미다. 광주시교육청의 이 같은 인사지침에 따라 교단에서의 공모교장 지원은 더욱 꺼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교장을 지난 뒤 교감으로 되돌아가면 이 때부터 다시 교장이 되기 위한 근무평점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교장 출

신의 교감이 오면 관리자들 간에 관계가 결리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재직 중인 광주지역 교장 상당수가 2017년부터 대거 정년퇴직이 예고돼 있어 기다리면서 자연적으로 교장 발령이 가능한데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공모교장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공모교장 지원 저조도 그 여파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광주의 한 공모교장은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직생활 마감을 교장으로 하고 싶어 한다"며 "공모교장은 열정을 가진 젊은 교장이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려고 지원하는데, 4년 후 다시 교감으로 내려가라고 하면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전남지역은 21개 초·중·고교에서 교장 공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최종 마감한 결과, 초등 15개교 중 10곳(67%)에서 단독지원 했고, 중등은 6개교 중 2곳(33%)에서 1명만이 지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초·중·고교 학부모 700명에 물어보니

“춘지·향응·불법찬조금 사라져 학교 청렴도 크게 높아졌어요”

광주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춘지·향응·불법 찬조금이 사라지는 등 학교가 청렴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여론조사 전문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초·중·고교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춘지 및 불법 찬조금 관련 청렴인식조사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의 학교청렴인식지수가 10.1%로 크게 개선됐다. 학교청렴인식지수는 학교의 춘지 및 향응,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지수가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다는 뜻이다. 광주지역 학부모의 학교청렴인식지수는 지난 2011년 23.3%에서 2012년 15.1%, 2013년 12.4%, 올해 10.1%로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 3년 전보다 2배이상 청렴성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학교급별 청렴인식지수는 초등학교가 8.9%, 중학교 10.3%, 고등학교가 12.7%로 초등학교 학부모의 청렴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춘지 풍토가 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35.6%, '그렇다' 42.7%로 10명 중 8명(78.3%) 가까이 춘지 풍토가 사라져 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춘지 및 향응 제공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97.3%가 '없다'고 응답했고, '불법찬조금 제공 경험'은 96.0%가 '없다'고 답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의 3대 핵심공약인 교육비리 척결 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청렴한 교직 사회 실현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와 통한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RDD)에 따랐다. 초·중·고교 학부모 5728명에게 전화면접을 실시해 700명의 유효자료를 수집했으며, 조사 응답률은 12.2%, 최대허용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다시 수색 현장으로

제 8호 태풍 '너구리'로 인해 피항했던 '88수중개발' 소속 바지선이 지난 11일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해역으로 복귀하고 있다. 바지선은 세월호 침몰 해역에 계류하면서 희생자 수색 작업을 벌이는 잠수사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제공>

제 8호 태풍 '너구리'로 인해 피항했던 '88수중개발' 소속 바지선이 지난 11일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해역으로 복귀하고 있다. 바지선은 세월호 침몰 해역에 계류하면서 희생자 수색 작업을 벌이는 잠수사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제공>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8 해질 19:48
달출몰 21:01 달지름 07:22

자외선 조심하세요
가끔 구름 많겠고 내일 오후부터 장마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1/31	보성	맑음	19/31
목포	맑음	21/28	순천	맑음	21/31
여수	맑음	22/29	영광	맑음	21/30
나주	맑음	21/30	진도	맑음	21/29
완도	맑음	21/30	전주	맑음	20/31
구례	맑음	19/32	군산	맑음	22/27
강진	맑음	21/30	남원	맑음	19/30
해남	맑음	21/30	축산도	맑음	21/26
장성	맑음	20/30			

◇바다 날씨

구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생활지수

식중독	75
운동	4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08:42	03:31	20:49	15:36
	10:17	04:13	22:54	16:15

◇주간 날씨

날짜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날씨	☁	☁	☁	☁	☁	☁	☁
기온	21/31	23/28	23/28	24/29	24/31	24/31	24/32

주중 장맛비...주말부터 본격 불볱더위

광주·전남은 15일 밤부터 17일 낮까지 장맛비가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뛰어 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15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 비가 내리다가 17일 낮부터 비가 그칠 것"이라며 "비가 그친 뒤 주말인 19일부터는 본격적인 불볱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13일 예보했다. 월요일인 14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이 끼며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하루가 예상된다. 15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겠다. 진도·여수 등 남해안 일부 지역은 초저녁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광주 등 내륙지방은 밤 늦게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5~17일까지 예상되는 장맛비가 그친 뒤 주말인 19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 될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장성 요양병원 방화 8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박영수)는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8명의 사상자가 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죄(사상)로 A(8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검찰은 정신 감정결과 심심미약(치매)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한 치료 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0시20분 장성군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별관 병실에 들어가 라이터로 침구류 등에 불을 붙여 환자 20명과 간

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다른 환자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재 당일 불이 난 병실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자신이 불을 낸 것처럼 CCTV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재 직후 형미경으로 관찰해 A씨의 양 눈썹이 불에 탄 흔적과 손등의 화상 흔적, 환자복 소매 끝단이 열에 녹은 흔적 등을 발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